

기업윤리 브리프스

3호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기업윤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 전문가 칼럼

우리나라 윤리경영의 현 주소와 정책적 과제

박광국(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회 회장)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지난 60년 동안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결과 2012년에 들어와 경제 규모 세계 15위, 수출규모 세계 7위,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세계적인 선진국가인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과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많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한국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포스트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작용으로 발생한 빈부격차와 부패문제가 한국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2011.6)라고 보고 있고,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산업국가이지만 부패문제가 너무 심해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강력히 대처하지 못하면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3년의 세계경제는 유럽발 금융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경제의 경착륙 예고, 일본 엔저시대 등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새 정부가 부패문제를 강도 높게 잡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처럼 다시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며 여기서 기사화생해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가 2010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가청렴도가 1점 상승하면 1인당 교역이 31%, 외국인 투자관심도 26%, 그리고 1인당 GNP는 25% 증가한다고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투명성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정·관·경 유착으로 인한 부패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 사법부의 부패문제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쯤에서 우리는 국가청렴도 1위를 거의 줄곧 기록하고 있는 핀란드를 비롯한 선진국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는 1999년 통합 헌법을 통해 “정부활동공개법”을 대폭 강화했다. 이 법에 의해 핀란드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신분과 열람목적을 밝히지 않고 정부, 공기업, 심지어는 사기업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무당국은 법원의 허가 없이 모든 국민들의 국내 은행계좌 뿐만 아니라 해외재산 내역까지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90년대에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윤리준법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90%이상이 강력한 윤리경영체계를 구축하였다. 미국은 엔론과 월드컴의 회계부정사건 이후 기업의 자발적 윤리준수 제고를 위해 미 윤리준법담당관협회(EOA: Ethics Officer Association)가 주도하여 “기업윤리경영표준안”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각국의 부패방지노력의 결정판은 바로 2010년 11월 1일 발표한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적 표준인 ISO26000(SR)이다. 즉, 사회적 책임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NGO 등 모든 형태의 조직에 공히 다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국제무역이나 해외진출에 중요한 평가지표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 3면에 계속됩니다.

산업별로 보는 윤리... 금융업

윤리경영 체계 구축

금융업계의 윤리경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금융권은 스스로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금융기업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인 임직원 법규 준수 행동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윤리와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신고자 보호제도, 청렴계약제도 이행 등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구직자들의 취업난이 문제가 되면서 금융업계는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힘쓰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사가 조성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으뜸기업-으뜸인력 매칭사업’을 협약하였다. 국민은행은 전용사이트를 통해 우량 중소·중견 기업의 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청년구직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기업들은 청년취업자를 채용하는 기업 및 취업자에게 여수신 금리우대,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채용기업에게는 기업신용등급 평가 시 인센티브 등을 적용해 대출금 규모에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녹색금융의 성장

기후변화문제로 인해 녹색성장이 이슈화 되면서 녹색 금융시장 역시 성장하고 있다. 녹색금융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제공하여 국가 전체의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금융을 말하며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등이 있다. 신한은행은 우량 녹색기업을 위해 우대금리 및 수수료를 지원하는 ‘신녹색기업대출’을 출시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보증 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에 출연하였다. 신한은행 외에도 우리은행, 국민은행 역시 녹색금융상품을 통해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부패와 신뢰에 관한 국제적 평가

TI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로서, 국가별 공직자들의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인식된 정도를 지수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40위로 최고점에 오른 이후 계속 점수와 순위가 하락하고 있으며, 2011년 43위, 2012년 45위로, 국제적으로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부패정도에 대한 심각성을 알 수 있다.

WJP 법치지수(Rule of Law Index)

비영리독립기구인 World Justice Project(이하 WJP)는 법치가 사회의 균등과 형평성이 유지되는 공동체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법치지수를 개발하였다. WJP의 법치지수는 WJP가 독립적으로 수집한 새로운 자료를 사용하여, 정부나 이해관계 당사자가 발표하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법치지수는 한 국가의 법치 수준을 정량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 권력의 제한, 부패 수준, 질서와 안보, 기본적 권리, 정부 공개성, 규제 집행, 민사사법제도, 형사사법제도, 일상적 정의실현의 9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우리나라의 경우 20위권 전후의 수준으로 평균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항목별로 보았을 때 정부권력의 제한과 부패 수준, 질서와 안보 부문이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IPS 국가경쟁력연구(IPS National Competitiveness Research)

산업정책연구원과 국제경쟁력연구원이 개발한 평가모델로, Double Diamond를 기반으로 한 9-팩터 모델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측정한다. IPS 국가경쟁력연구는 생산조건, 수요조건, 관련산업, 경영여건, 근로자, 정치가 및 관료, 기업가, 전문가, 기회요인의 총 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62개국 중 18위로 나타났고, 하위부분을 살펴보면 경영상황과 관련하여 내부거래, 공정한 대우, 윤리적 관행, 사회적 책임, 임직원 안전 및 보건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경영상황에 있어서 윤리적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정치 및 관료의 윤리수준이 상당히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WEF 국가경쟁력평가(WEF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제네바의 비영리재단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평가는 ‘국가경쟁력’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2012년 WEF 국가경쟁력평가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12개 부문 가운데 보건 및 초등교육, 상품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제도적 요인 등 6개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세부항목 중 공공자금의 전용,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정부지출 낭비, 정책결정 투명성, 기업 이사회 유효성, 정치인에 대한 신뢰, 경찰서비스 신뢰성, 사법부 독립성,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등 신뢰 및 부패와 관련된 항목이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최근 미국 법무부(DOJ)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발간한 FCPA 안내서(A Resource Guide to the FCPA)에서는 철저하고 효과적인 반부패 준법 프로그램의 실시가 FCPA 위반에 따른 처벌에 있어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FCPA에 의한 처벌시 고려 기준인 사내 준법 프로그램

안내서에서는 반부패 준법 프로그램의 시행이 FCPA 위반을 예방하고 그 위반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국 사법당국이 FCPA 위반에 대한 집행을 개시할지 여부 또는 처벌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내 준법 프로그램은 확실적인 것이 아니라 각 기업들의 corruption risk에 부합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효과적인 준법 프로그램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소들을 소개하고 있다.

효과적인 준법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10가지 요소

안내서는 효과적인 준법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10가지 요소에 대해 “1. 고위 경영진의 의지 및 명확한 부패방지 정책, 2. 윤리 강령, 컴플라이언스 정책 및

절차, 3. 감독, 자율권 및 자원, 4. 리스크 평가, 5. 교육 및 지속적인 자문, 6. 인센티브 및 징계, 7. 제3자에 대한 실사 및 지불, 8. 익명 보고 및 내부 조사, 9. 지속적 개선: 정기적인 테스트 및 검토, 10. 인수합병: 인수 전 실사 및 인수 후 통합”이라고 명시하였다.

사내 준법 프로그램 실시로 인한 감면 사례

DOJ는 글로벌 투자은행인 M사의 직원이 중국의 부동산 사업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안에서, 평소 M사가 강력한 사내 준법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해당 직원과 달리 M사 자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이 있다.

국내 기업의 사내 준법 프로그램 사례

포스코는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령의 위반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은 준수절차와 방법, 금지행위, 내부통제, 교육 등 모두 11개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국내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금전 수수 및 접대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신고·상담센터’를 최근 오픈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외 반부패법령 준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 미국 · 영국의 윤리경영 정책 및 제도

한국

1960년 이후 성장위주의 정책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지만,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기업은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였으며, 무엇보다 기업의 윤리성 강화가 강조되었다. 정부는 경영투명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규범을 제정하였다. 또한 내부통제 역시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는 2001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고, 청렴계약제, 준법 감시인 제도와 자율준수 규범 도입,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미국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워터게이트(Watergate), 록히드마틴 등 대기업의 문제가 발생하고 해외 뇌물 부패 스캔들 등의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업의 윤리경영체제 도입 촉진을 위한 윤리경영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였으며, 기업윤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1991년 말에는 미국연방판결지침(Federal Sentencing Guideline)을 도입하였고, 이밖에도 대학 및 기업윤리전문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유도하였다. 또한 범세계적인 부패방지를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부패활동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

기네스, 맥스웰, 폴리팩 등 영국 기업의 간부들이 회사의 이윤을 횡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기업윤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영국은 2000년 상무성의 전자상거래 및 경쟁력 담당 차관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담당관으로 임명하였고, 2001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정책 Initiative를 발표하면서 기업의 윤리경영을 강화하였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기업들은 윤리경영 실천과 확산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강한 의지와 적절한 실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공감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지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뇌물과 관련된 부패문제가 국제 사회에 이슈로 떠오르면서 영국은 해외정부에 대한 기업의 뇌물수수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 뇌물수수법(Bribery Act)을 발표하였다.

[한국 · 미국 · 영국의 윤리경영 제도 비교]

	한국	미국	영국
정책/제도	·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 부패 방지 종합 대책 · 부패방지법 · 청렴계약제 · 준법감시인 제도 · 자율준수 규범 · 준법지원인 제도	· 해외부패방지법 · 정부윤리법 · 기업윤리행동원칙 · 미국연방판결지침 · 기업 윤리경영 표준안	· 중대비리조사청 설립 · 사회적 책임 수행 지원 · 뇌물수수법

최근 국내외 동향

:: 국내 윤리경영 동향

2012년 기업호감지수

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기업호감지수(CFI: Corporate Favorite Index)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49.8점을 기록했다고 밝혔음. 세부요소별로는 국제경쟁력(79.6점), 생산성 · 기술향상(63.4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사회공헌활동(40.8점), 윤리경영실천(22.9점) 등은 50점을 밑돌았고 국가경제기여(51.0점)는 평균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음.

2013년 지속가능경영 올림픽서 한국기업 6곳 금메달

글로벌 회계컨설팅펌 KPMG와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 평가기관 로베코샘(RobecoSAM)사가 공동 발간한 '2013년 지속가능성 연차보고서'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에서 독일과 함께 금메달 6개로 공동 2위를 차지하였음. 현대건설, GS건설, 아모레퍼시픽, SK텔레콤, KT, 롯데쇼핑 등의 6개 기업이 금메달을 획득하였음.

2013년 에델만 신뢰도 지표조사

'2013년 에델만 신뢰도 지표조사' 결과, 에델만은 기업 · 정부 · 미디어 · NGO 등 4대 기관 가운데 NGO가 신뢰도 66%로 유일하게 한국에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으며, 미디어(49%), 정부(44%), 기업(31%) 모두 신뢰도가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삼성 '사장 평가에 준법지수 반영'

삼성그룹은 2012년 10월 임원평가에 준법지수 항목을 넣는데 이어 사장 평가에도 이를 추가함.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준법지수를 사장(회사) 및 임원

평가에 반영하며, 사장 평가에서는 최고경영자(CEO)의 준법경영의지, 준법경영실행 조직 체계, 활동과 결과 등을 지수화해서 반영하게 됨.

:: 해외 윤리경영 동향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2013년 포럼의 주제는 아랍의 유정에서부터 유로 존의 미래까지 다양하며, 올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불굴의 역동성(Resilient Dynamism)'이었음. 세계경제포럼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바는 이에 대해 미래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이라고 이야기 하였음.

GRI 세계 회의 개최

2013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세계회의가 개최됨. 1,500여명의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며,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통합 보고, Data-tagging, XBRL, 보고 정책 변화 등을 포함해 GRI의 최신 가이드라인인 G4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럽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

2013년 2월 6일, 유럽의회는 CSR을 위해 2011년에서 2014년에 걸친 유럽 전략 실행을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음. 이 전략은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정부의 활동이 강화됨을 보여주는 전략이자 지금까지의 유럽의 CSR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판단되고 있음.

中 시진핑, 새해부터 '반부패 드라이브' 예고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2012년 마지막 날 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청렴한 당풍 건설과 반부패 방안을 강도 높게 논의하였음. 새해부터 공직자에게 10,000위안 이상의 뇌물을 건네다 적발되면 강화된 법률 해석 지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공직자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법률도 올해 안에 채택될 예정임.

1면에서 이어집니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반부패 및 청렴수준의 제고를 대통령 어젠다로 설정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월드뱅크가 언급하는 국부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비용의 비중을 보면, 자연자원은 2%, 생산자원은 17%인데 비해 신뢰성과 투명성에 기초한 사회 자본은 무려 81%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제 국가생산성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 이 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장을 찾아서...

:: 한국 지멘스



한국 지멘스 회장 김종갑

이번 호에서는 지속가능경영과 윤리경영의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지멘스의 김종갑 회장님을 모시고 지멘스의 윤리경영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먼저 지멘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멘스는 독일 베를린과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기전자기업입니다. 1847년 지속가능성을 창업이념으로 하여 출범한 지멘스는 주주뿐만 아니라, 종업원, 지역사회와의 이익을 균형되게 반영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국내에 진출한 한국 지멘스는 선진 기술과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협력, 적극적인 투자, 연구개발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 지멘스가 지속가능경영과 윤리경영에서 우수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입니까?

지속가능성은 지멘스의 창업이념이자 모든 활동의 준칙입니다. 지멘스는 직원을 핵심가치로 여기고 역량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고객의 가치 창출, 협력업체와의 장기적인 상생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글로벌 최고경영자는 “지멘스의 모든 임직원들은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오로지 청렴한 사업만을 추구할 것이며 준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최우선 과제”라고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멘스의 윤리경영은 고객들로 하여 신뢰를 구축하게 하고, 이는 지멘스의 사업확대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지속가능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있어, 회장님의 확고한 경영 철학이 있으신지요?

기업이 단기 이익의 유혹을 이기고 지속가능경영과 윤리경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전 임직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실제 경영에서도 역점을 뒀 왔습니다. 최근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 4.0 또는 창조 자본주의 등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역사가 짧지만 새로운 방향설정을 위한 토론을 활성화하여 수백 년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4. 지멘스는 임직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멘스의 준법 절차는 인사 절차와 연계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직원의 승진 시에도 준법 관련 업무 수행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경영진의 주요 실적 지표에 준법 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위사실은 승진 및 성과 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전 세계 지멘스에서는 준법 조직이 아닌 직속 관리자들이 직접 실시하는 독특한 준법 토론 방식을 채택하여 준법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 지속가능경영과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한 지멘스만의 특별한 시스템 또는 제도가 있는지요?

윤리경영을 위해 지멘스가 구축한 준법시스템은 사내 업무 관계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준법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를 경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한국 지멘스는 부서별 준법 전문가인 준법 홍보대사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사업부 조직에 걸쳐서 준법 주제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멘스에는 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혹은 반부패에 대한 대화의 장으로 준법이사회를 설치하고 최고경영진은 물론 각 사업부서 경영진이 참여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교환하며 토론을 합니다.

6. 지멘스의 지속가능경영과 윤리경영 측면에서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과 이를 위해 지멘스가 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나요?

지멘스는 조직 내에 준법 시스템을 확립하거나 기존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멘스를 벤치마킹하려는 회사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습니다. 지멘스는 기업준법윤리포럼 운영을 통해 담당 공무원 및 관련 회사 담당자를 초청하여 최근 법규 내지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해 강연을 들으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장을 제공합니다. 반부패와 윤리경영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도 세계 은행의 협력을 받아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를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지멘스의 지속가능경영과 윤리경영에 대한 비전과 미션을 공유해주세요.

“오직 청렴한 사업만이 지멘스의 사업이다”는 지멘스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한국기업들은 최근 지배구조의 개선, 준법 윤리경영 체제 도입, 내부통제 제도의 확립, 환경경영 실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확대 등의 지속가능경영 실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도 결국 지속가능경영을 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지속가능성장은 한국 자본주의의 격을 높이자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166년 간의 역사를 가진 지멘스의 지속가능경영의 경험이 한국 기업사회가 나아갈 길에 한가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윤리 브리프스」 (웹진)에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기업윤리 기업윤리 브리프스 '웹진 신청하기'

「기업윤리 브리프스」는 국내 기업들의 자율적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최신 윤리경영 동향과 트렌드, 사례, 전문지식 등 실무에 직접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제작·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브로셔는 그동안 매월 웹진 형태로 발간된 「기업윤리 브리프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주요 콘텐츠를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소속 기관장들로부터 찬조금 수수 금지

Q 모 공기업 총무과장 A와 직원 B는 본부 임직원만을 위한 체육행사를 추진하면서, 소속기관장들로부터 행사 찬조비 명목으로 금 10~20만원 상당의 현금과 양주·오징어, 홍어 등 물품을 포함하여 총 1,800천원 상당의 금품을 찬조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A 본부는 소속기관장에 대한 인사, 예산 배정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임직원만의 행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장들로부터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직무관련 임직원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의 위반입니다.

2. 대가성 없는 명절선물 수수 금지

Q 모 공기업 경영기획팀장 A는 집에 귀가하여 '누군가가 택배로 보내온 옥돔세트를 상할까봐 포장을 뜯어 냉동실에 넣어두었다'라는 말을 들었다. 확인해보니, 자신의 부서에서 용역 건을 수행하고 있는 B연구원 원장 B가 보낸 30만원 상당의 선물이었다. B는 "용역계약과 상관없이 평소 팀장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대가성이 없더라도 본인의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선물을 수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비록 즉시 반환하지 못하고 포장을 뜯어 상품가치가 훼손된 물품일지라도 기관의 감사담당 부서에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 공직자 행동강령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국 내

윤경 CEO 서약식

윤경 CEO 서약식이 '함께 달려온 10년,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윤경 CEO 서약식은 CEO의 윤리서약을 통해 윤리경영 의지를 재천명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과 사회에 윤리적 문화를 전파시키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주최 : 산업정책연구원 윤경SM포럼 사무국
- 일시 : 2013년 3월 28일(목)
- 장소 :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KSA 신춘CEO포럼

한국표준협회가 KSA 신춘CEO포럼을 개최함. '새 시대, 새 희망'을 주제로 2013년 기업경영의 새로운 해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음.

- 주최 : 한국표준협회
- 일시 : 2013년 3월 14일(목)~15일(금)
- 장소 : 누리마루APCE하우스, 웨스턴조선호텔 부산

제4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가 '아시아의 새로운 도전: 착한 성장, 똑똑한 복지'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임. 세계 각국에 새로운 리더십이 대거 등장한 시점에 아시아 각국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논의할 예정임.

- 주최 : 조선일보
- 일시 : 2013년 3월 26일(화)~27일(수)
- 장소 : 서울 셰라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

국 외

Annual CSR Forum: CSR & IR –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Annual CSR Forum이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라는 테마를 가지고 개최될 예정으로, 이번 자리는 금융 & 투자에서 경쟁 우위로써의 CSR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주최 : Capital Link
- 일시 : 2013년 03월 13일(수)
- 장소 : 미국 뉴욕 The Metropolitan Club

윤리경영 퀴즈

공공부문의 부패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별 공직자들의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개발한 이 지표의 이름은 무엇인가?

- 1) TI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2) WEF 국가경쟁력평가(WEF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3) IPS 국가경쟁력연구(IPS National Competitiveness Research)
- 4) WJP 법치지수(Rule of Law Index)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 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담당자 문옥인(oim2821@korea.kr)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보내주시십시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박현 님, 전해원 님, 이재상 님, 허준일 님, 김지연 님입니다.

※ 상품은 보내주신 주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Yes 준비!
 Ok 윤리!

하인리히 법칙



1920년대 미국 여행보험회사의
허버트 하인리히는 약 5천 건의
노동재해를 분석하다가

그 속에 하나의 통계적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와 관련
있는 소형사고가 29건 발생하고,

그 소형사고 전에는 같은 원인에서
비슷한 이상 징후들이 300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9:300 법칙'
즉,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항상
어떤 시그널, 즉 신호가 있다는 것이 바로
'하인리히 법칙'의 핵심입니다.

이 '하인리히 법칙'을
반대로 생각하면,

사소한 일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면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무심코 보아 넘겼던
행동들이 어쩌면 조직을 망가뜨리는
대형사고에 대한 징후일 수도 있으므로,

사소하게 보이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항상 경계하고 살피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장님!
노란 불에 건너시면
어떡해요?

하인리히 법칙도
모르세요?
어저고 저저고.

그건 알겠는데.
왜 매번 내가 널 모시고
출장가야 되냐고?

자신의 직무에 따르는 성과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윤리경영입니다. 자료제공 : 교보문고 (그림 안중만)

새로운 책 소개



100년 기업의 힘 타타에게 배워라

저자 : 오화석
출판 : 매일경제신문사
출판일 : 2013년 02월 12일
정가 : 15,000원



컴플라이언스

저자 : 마틴 비겔만(노동래 역)
출판 : 연암사
출판일 : 2013년 02월 20일
정가 : 28,000원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